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설·한파 피해 복구계획 확정

지난해 12월 21~24일 도내 1574건 피해 발생
도,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소상공 지원금 등 지급
피해 도민에 지방세 감면 등 18개 분야간접지원

전라북도는 지난해 12월 21~24일 대설·한파·강풍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예비비를 활용한 지원금 지급 등 후속 조치가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전북도는 18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30억5,800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짧은 기간 최고 68.5cm(순창 북쪽에 이르는 등 많은 눈이 내렸고, 한파와 강풍까지 겹쳐 피해가 커졌다.

전북지역에 발생한 피해규모는 도내 12개 시군에 사유시설 1,574건, 88억 8,500만원이 발생했다.

공공시설 피해는 없었다.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1,088건 60.5ha, 축사 등 축산시설 121건 6.1ha, 주택(한파) 2동 등 붕괴 피해와 농작물 223건 25.7ha, 산림피해 136건 4.4ha 등 냉해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대설·한파·강풍으로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신고·확정한 농립시설 농작물 및 산림피해 등 피해를 본 도민에게는 재난지원금 30억 5,800만원이 지급된다.

피해 조사 결과 24억원을 초과하는 정읍 순창과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 합계가 3,000만원 이상인 6개 시군(군산, 남원, 김제, 임실, 고창, 부안) 등 8개 시군은 국·도비가 지원된다. 3,000만원 미만인 4개 시군(전주, 익산, 진안, 장수)은 시군 자체 재원으로 지원된다.

또한, 이번 대설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4개소) 및 주택 반과 주민(2가구)은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한 정부 정책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 도민에게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주택 주민에는 기본 800만원을 지원하며, 피해 면적

에 따라 200~1,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도비 부담분(5억5,000만원)은 예비비를 활용하고, 해당 시군 협조하에 추경 성립 전 집행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1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추가로 이번 대설·한파·강풍으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는 국제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 18개 분야 간접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순창, 생지면)은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이 추가된 총 30개 분야의 간접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편, 앞서 순창군 생지면은 행정안전부, 농식품부가 참여한 중앙피해조사단의 피해 확인을 거쳐 대통령 재가 후 지난 1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읍시, 순창군(생지면 제외)은 일반재난지역(우산지역)으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는 중앙피해조사단 조사서 보험 가입자(풍수해 보험 등)의 피해액도 시군 피해액에 합산되도록 기준 개선을 건의하는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 노력했다.

노력했다. 한편, 이번 대설로 피해를 본 도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도 예비비를 활용,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올해도 겨울철 대책기간 종료시까지 대설 및 한파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피해 시설은 신속히 복구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설 앞두고 장 보는 시민들



설 연휴를 앞둔 18일 원주군 삼례시장 오일장이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몰린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올 전북 20대 아젠다 선정

전북연구원, 특별자치도 준비·새만금 특별자치체 설치
군산조선소 안정화·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 등
정책대안 마련 연구과제 수행·포럼 열고 이슈 확산 나서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이슈브리핑을 통해서 코로나19, 인구감소, 저성장 등의 국내외적으로 지속되는 커다란 위기 속에서 전라북도의 혁신과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2023 전라북도 20대 아젠다를 발표했다.

전북연구원은 매년 전라북도의 주요 의제(아젠다)를 선정해 발표해왔다. 2023년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준비,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이 주요 의제로 선정됐다.

전북연구원은 2023년을 새로운 전북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독자관역으로의 위상과 특례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

치로 새만금 중심 경제공동체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북경제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해 군산조선소의 조기 안정화로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선도하고 지역주도 일자리 정책을 통한 고용활성화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푸드테크를 적극 활용한 스마트농업 생태계 구축과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핵심 의제로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조성을 선정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팬데믹에서 엔데믹 시대로의 전환에 맞춰 도내 자유·환경자산을 활용한 예코 삼천리길 조성으로 방문객에게 지속가능한 생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북이 관광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재훈 기자

특히, 2023년에는 세계스카우트 캠프리과 아메마스터스 대회가 전북에서 개최되는 만큼 두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전라북도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과 지방소멸 대응기금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원스톱 복지서비스 기반의 마련을 위한 전북형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과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한 5대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소멸 위험과 지방대학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이 참여하는 협력체계의 구축으로 지방대학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전북연구원은 2023년 전라북도 20대 아젠다의 구체화와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포럼 및 세미나 등으로 이슈 확산과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군산조선소 생산 블록

해상운송 통해 선박건조 투입

군산시는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인 공장 재가동 이후 군산조선소에서 생산된 블록이 이달 해상운송을 통해 선박건조에 투입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블록 생산의 첫 공정인 철관 가공 공정을 시작으로, 소조립, 대조립, 도장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생산된 블록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로 옮겨져 대형 컨테이너선 건조에 쓰여지게 된다.

현재 공장 재가동 이후 생산된 블록은 20여개 정도이며, 도장공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해상운송을 들어갈 예정이다. 재가동에 따라 군산조선소에서 생산된 블록은 연간 약 10만톤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 10만톤은 일반대형선박(길이 280m, 폭40m, 높이20m)을 3척에서 5척 정도 건조할 수 있는 양이다. /군산=김관근 기자

행복한 교실은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존중받는 교실입니다

교권보호 = 행복한 교실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